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신 현 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임진강변에 정자를 지은 이율곡

조선 선조 임금 때 학자인 율곡이이가 병조판서를 지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율곡은 선조 임금과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 10만 대군을 길러내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요즘같이 평화로운 때에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10만 대군을 길러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대를 양성하는 데 어디 돈이 한두 푼 들겠습니까? 그런 헛된 일에 국고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대신들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과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양성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말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반대하니 병조판서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소.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마시오.”

이율곡은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 나라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대군을 길러내자고 했는데, 다른 대신들은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율곡을 모함하기에 바빴습니다. 역시 주장을 하는 이율곡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율곡은 벼슬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율곡의 고향은 경기도 파주의 과평면 율곡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호 율곡을 고향 이름에서 따와 지었습니다.

고향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언덕에 올라가 강을 내려다보던 이율곡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자를 지어야겠다. 목수를 불러 공사를 시작해라.”

이튿날 목수가 와서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정자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율곡은 공사 현장을 찾아와 일일이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정자를 지을 나무는 소나무를 쓰되, 송진이 많은 소나무만 골라 써야 하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가?”

“예. 송진이 많은 소나무만 구해 왔습니다. 대감마님, 송진이 많으면 소나무가 기둥으로 쓸모가 없는데……. 잘 휘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송진이 많은 소나무만을 쓰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것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공사를 하게.”

공사는 착착 진행되어 지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율곡은 공사 현장에 나와 또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지붕을 올릴 때는 흙을 많이 쓰면 안 되네.”

목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흙을 많이 쓰지 않으면 가벼워서 오래 못 써요. 태풍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도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야 그렇지만……. 정자가 100년 이상은 가야지, 겨우 10년을 버티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야, 10년이면 충분해. 자네는 다른 생각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며칠 뒤, 드디어 정자가 다 지어졌습니다. 이율곡은 정자 이름을 ‘화석정’이라 짓고 현판을 써서 정자에 걸었습니다.

그자리에는 목수가 와 있었습니다. 이율곡이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공사를 하느라 수고 많았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수고해 주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에 어디 손볼 데가 있습니까?”

“응, 다른 게 아니라 정자에 기름을 발랐으면 하는데…….”

“예? 정자에 기름을 바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불이라도 나면 흘러당 다 타 버려요.”

“나도 알아.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러니, 더는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목수는 이율곡이 시키는 대로 정자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분야야. 남들은 정자를 튼튼하게 짓지 못해 안달인데, 어째서 겨우 10년을 버틸 부실한 정자를 짓는 거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얼마 뒤, 이율곡이 정자를 그렇게 지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율곡은 다시 나라에서 벼슬이 내려져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을 불러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 말을 귀담아들어라.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하께서는 도성을 비우고 피난을 떠나실 텐데, 여기 임진강을 건너셔야 할 거야. 그때 캄캄한 밤이면 화석정에 불을 질러 그 길을 밝혀 드려라.”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은 그제야 이율곡이 정자를 그렇게 부실하게 지은 까닭을 알았습니다. 불이 잘 붙으라고 송진이 많은 소나무를 썼고, 불타는 데 지장이 없으라고 지붕에 흙을 많이 쓰지 말라고 했으며, 활활 타오르라고 정자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조판서에 임명된 이율곡은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나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을 얻어 얼마 뒤에 벼슬을 그만두었고, 병세가 나빠져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1584년이었습니다.

이울곡이 예언했듯이 조선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임진왜란으로, 이울곡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째 되는 해인 1592년 봄이었습니다.

왜군들은 한양을 향해 쳐올라왔습니다.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아 불과 10여 일 만에 한양까지 내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할 수 없이 한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 일행이 임진강에 다다른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임진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하는데, 신하들은 캄캄한 밤이어서 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궁하옵시다. 도저히 배를 찾을 수가 없으니 오늘 밤에는 민가에서 주무시고, 날이 밝는 대로 배를 찾아 강을 건너셔야겠습니다.”

선조 임금을 모시는 다른 신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오? 왜군들이 턱말까지 쫓아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쉬어가란 말이요? 당장 임진강을 건너야 하요.”

그 때였습니다. 별안간 언덕 위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정자에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이울곡의 고향집을 지키는 하인들은 이울곡이 부탁한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조 일행이 임진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재빨리 화석정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임진강 나루는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선조 일행은 금세 배를 찾아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배 안에서 언덕 위에 불타는 정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신기하구나. 캄캄한 밤이어서 우리가 배를 못 구해 밭을 동동 구를 때, 정자가 불에 타오르다니…….”

“전하를 무사히 간네주려고 하늘이 도와주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정자가 참 오래 잘 타는구나. 불빛도 환하고…….”

선조 임금은 타오르는 불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선조 임금은 임진강에서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 그날 어찌하여 정자가 불타는지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진강을 찾아간 신하는 대궐로 돌아와 선조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정자는 울곡 대감께서 그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지어 놓은 정자라고 합니다. 대감의 고향집 하인들이 생전에 대감의 부탁을 받고 정자에 불을 놓았다는군요.”

선조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울곡은 내가 피난을 떠나 임진강을 건너갈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구나. 그가 전쟁이 날 줄 알고 10만 대군을 길러내 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피난을 떠나는 수도는 겪지 않았을 텐데.”

선조 임금은 이울곡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화석정은 선조 임금의 지시로 임진강변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물론 수백 년을 버틸 수 있게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